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54호(99/6/24)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world.net/~rights/>



모든 사람은 법앞에서 평등하고,
아무런 차별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7조-

사람은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체포, 구금 및 추방 당하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9조-



<귀국 인사>

유엔인권기구를 움직이는 민간단체들 확인

이주영(사회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지난해 겨울 한 통의 전자우편이 날아왔다. 그것은 국제인턴쉽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단체에서 보낸 것이었는데 인권운동사랑방의 지원서가 채택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러한 답신을 받기 한달 전 쯤 사랑방에서는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갖기 위해 제네바에서의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청해놓은 터였다. 하지만 애초에 과연 채택될지 반신반의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권 영역의 일들을 맡아 새롭게 시작하려던 차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권 활동가들의 교육·훈련에 상당한 우선 순위를 두는 사랑방의 기조 덕분에 나는 3월 2일 스위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제네바에서 나를 맞아준 단체는 팍스로마나였다. 국제적인 가톨릭지식인문화운동단체인 팍스로마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민간단체로서의 협의자격을 갖고 있어 유엔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에 매년 참여해 인권과 평화·발전의 문제 등을 제기한다. 팍스로마나에서 연수를 하기로 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한때 사랑방 성원이었던 이성훈 선배가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실제 3개월 동안 이성훈 선배는 유엔 인권기구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고민하도록 자극을 줬다. 게다가 팍스로마나에는 나 말고도 인도네시아, 잠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루마니아 등에서 온 연수자들이 있어 서로 다른 나라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팍스로마나에서 3세계 인권활동가들과 3개월

이번 연수는 주되게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진행됐던 55차 인권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시작되기 전 몇 주간은 주로 유엔인권기구들에 대해 공부하고 이번 인권위에서 논의될 내용들을 미리 훑어보는 시간들로 이뤄졌다.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매일 아침 브리핑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해 10시부터 시작되는 본 회의에 참석하고 틈틈이 민간단체 활동가들이나 유엔 인권전문가들을 만나는 것이 주 일과였다. 6주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무척이나 많은 의제들을 논의해야 하다보니 저녁 9시 혹은 12시까지 회의 시간이 연장되기 일쑤였다. 회의가 없는 토요일에는 팍스로마나 자체적으로 특정한 주제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곤 했다. 동티모르·코소보·카슈미르·라틴 아메리카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직접 그 지역의 인권활동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처음 참가한 사람으로서 초반 몇 주간의 느낌은 매우 회의적이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국가들 간의 힘 겨루기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다. 과연 여기서 인권상황의 진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밖에 없었다. 인권위원회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발발한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은 이러한 회의적인 느낌을 더욱 짙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위원회를 인권 옹호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중 한가지는 특별보고관이나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활동이었다. 중요한 주제의 경우 특별보고관이나 독립적인 전문가가 임명돼 있고 이들은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들의 보고서는 내용적인 성실함이 두드러졌다.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이 뚜렷한 보고서들의 경우 “인권단체들 뺨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특별보고관이나 전문가들 중 다수가 현재 인권단체에 몸을 담고 있거나 과거에 활동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인권단체들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내용성 있는 발언들은 주로 인권단체들로부터 나올 뿐 아니라 정부대표가 상정하는 결의안들도 많은 부분 인권단체들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들이 없으면 유엔인권위원회가 굴러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싸우는 인권운동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인권단체 뺨치는 특별보고관들의 활약

6주간의 회의와 평가작업 후 어느새 제네바에서의 3개월이 흘러갔고 나는 이제 인권운동사랑방에 앉아있다. 3개월의 연수는 끝났지만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후속 과제들이 남아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국제인권단체들과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를 모색하는 것, 한국의 인권 문제를 보편적인 문제로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것, 유엔에서의 인권 관련 논의들을 소화해내고 우리운동의 양분으로 만드는 일 등. 실제 3개월 연수의 의미는 이같은 과제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끝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국가인권위 설치 문제로 단식농성을 하는 등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인권운동사랑방 식구들, 내게 좋은 연수의 장을 마련해줬던 팍스로마나에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전하고 싶다.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 보고모임

- 일시: 1999년 7월 8일(목) 오후 5시 장소: 미정(추후 공고)
-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전화: 777-0643)
- 내용: · 유엔인권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조시현, 성신여대 법학과)
· 아시아 지역의 인권상황 개괄(장경주, 민변 국제연대 간사)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발전권 논의 소개(이주영, 사랑방 사회권위원회)
· 제51차 유엔인권소위원회 참가에 대해(조시현, 성신여대 법학과)

사 / 업 / 보 / 고

(99년 5월 넷째 주부터 6월 셋째 주까지)

검찰 보복구형에 항의서한 조직 중 서대표에 5년 구형, 7월 6일 선고

서준식 대표가 지난 15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무려 5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의 보도를 통해서 보았듯이 검찰은 서대표에 대해서 음비법 위반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소 취하를 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위반과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뿐입니다. 이로써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한 부분은 슬쩍 빠져버리고, 이제는 사상범 재판같이 본질이 변화되었습니다. 서대표가 평소 주장하던 필화사건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사랑방에서는 국내외에 항의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권법 공대위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서한을 보내기로 하였으며, 국제단체들의 항의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1심 선고재판은 오는 7월 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부지원 407호 법정입니다. 재판부는 서부지원 3단독(판사 오석준)입니다.

아셈 2000 민간포럼 준비위 결성

인권 분야 14개 단체 참여

2천년 10월 서울서 열리는 제3차 아셈회의에 대한 민간단체의 대응기구인 'ASEM 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지난 8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열렸습

니다. 이날 결성식에는 65개 단체, 8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임시사무국으로 녹색연합을 선정하였고, 인권, 평화, 환경, 여성, 노동, 농민 등 12개 분야를 포럼에서 다루기로 하였으며, 각 분야별 간사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인권 분야는 간사단체로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되었습니다. 인권 분야에 참가하는 단체로는 사랑방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부산인권센터, 성공회대 인권과 평화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가협,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광주인권지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장애인연맹, 다산인권상담소, 국제문제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엠네스티한국지부 등 14개 단체가 이미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성식을 마치고 한국여성의 전화연합과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인권 분야에 참가의사를 밝혀왔고, 민변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참가 여부를 논의중에 있습니다.

인권 분야에서는 사전준비로 지속적인 학습을 진행하면서 인권의제와 현재 제기되는 세계화에 따른 구조적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 고민하여 제시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유럽과 아시아의 연대를 구축하고 인권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인권단체들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국제연대 특히 아시아지역의 지속적인 연대들을 형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형법 워크샵 개최, 의견서 발송

법무부가 지난 5월 29일 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민간의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방의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16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행형법 개정 관련 워크

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워크샵에는 자유권위원회 소속 '감옥의 인권을 생각하는 모임' 회원들을 비롯한 30여명의 인권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인권하루소식> 6월 17일자에 실린 것과 같습니다. 이 워크샵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하여 18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행형법 개정이 민영교도소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개정은 사실상 현실성이 적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법조문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영교도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7월 중에 본격 제기하기로 하고, 민간 행형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입법청원할 계획입니다.

지문날인 거부운동 전개키로

오는 7월부터 새로운 플라스틱 재질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되고, 이를 위한 사진 및 지문채취가 각 동별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늦기는 했으나,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진보연대, 민변 등과 함께 6월말경에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을 조직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지문날인이 전국민을 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를 통한 개인 정보의 유출, 국가권력의 통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이번 지문날인 방식은 디지털 방식으로 입력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문날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하고, 이후 과태료가 부과되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성원들은 이미 이번 주민등록 갱신 작업에서 지문날인 거부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 10월말로 잠정 결정

다시 인권영화제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화제 기획담당자인 김정아씨가 지난 10일 2주간의 일정으로 출국, 뉴욕인권영화제에 다니러 갔습니다. 김정아씨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뉴욕에서 올해 상영할 작품 리스트를 확보하고, 아울러 상영권, 판권 등과 관련한 교섭도 진행하게 됩니다. 김정아씨의 귀국 이후 영화제 준비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4회 인권영화제는 오는 10월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가질 예정이며, 상영 장소로는 서강대 또는 동국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집행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 바뀌고 모든 책임을 사랑방이 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집행과 기획단위 구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7월의 사무국 밤샘토론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실, 8월 3개 인권캠프 준비

인권교육실에서는 이번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중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인권캠프는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자연학교에서 갖고, 초등, 중등, 대학생으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초등학생반은 4~6학년을 대상으로 8월 9,10일 1박2일간, 중등학생 8월 1

2~14일 2박3일간 열리게 되며, 각 반은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의 인권캠프는 8월 대학생들의 개학 직전에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인권교육실은 <21세기를 향한 인권교육(600쪽)>을 서대표, 류은숙, 배경내씨가 분담하여 번역하여 오는 12월 10일에 맞춰서 출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Stand up for Human Rights』의 저작권 문제도 해결되어 초벌 번역된 것을 수정하여 9월중에 출판사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로써 인권교육실에서는 지난 3월 『인권교육 길잡이』를 펴낸 데 이어서 올해 중으로 인권교재를 두 권 더 펴낸다는 야심찬 기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3개월간 제네바에서 연수중이었던 이주영씨가 지난 5일 예정보다 일찍 귀국했습니다. 이주영씨는 팩스 로마나의 이성훈씨로부터 지휘를 받으면서 유엔 인권위원회 전과정에 참여하였고,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평화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이주영씨는 사회권위원회의 보고서 작업에 곧바로 결합하였습니다. 또한,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맹활약을 했던 이창조씨가 6월부터 3개월간의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창조씨는 한달간 남해의 한 섬에 들어가 떨치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정, 김정희씨가 연수를 끝내고 정식 사랑방 식구가 된 데 이어 인권영화제 담당인 김정아씨도 연수 마치고 사랑방 성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인사동 대표로 활약하던 고근예씨가 6월부터 연수과정에 들어갔습니다.

■ 지난해 1만 마르크의 재정지원을 받았던 독일 재분배 재단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사랑방 사업

중 두 가지 사업, 즉 사회권 사업과 정보자료실 인터넷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원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 사무국에서는 연수생들의 연수 프로그램과 연구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유해정, 김정희, 김정아, 류점열, 고근예 씨 등 이미 5명이나 되는 사람이 상임활동가가 되기 위한 연수과정을 거쳤거나 과정에 있는 중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늘어나는 사업 때문에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곧바로 사업에 투입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권활동가로 제대로 훈련시켜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이후의 연수과정은 집중적인 교육과정과 집단 지도방식에 의한 활동가의 자질 및 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회의 안에 인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과정을 만들어갈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드디어 사랑방의 로고가 탄생했습니다. 전통적인 꽃떡 문양을 응용하여 사람 모양을 형상화하고, 오병철 선생의 한글 서체를 살린 서예 글씨를 가미한 로고로 결정했습니다. 이 로고는 현재 디자인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이며, 오는 7월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로고작업이 끝남에 따라 브로셔, 공문, <인권하루소식> 등에 이 로고가 쓰여지게 됩니다. 로고 작업 디자인에는 이용신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 조직사업이 다른 사업 일정에 밀려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기로 하

였지만, 현실적인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더 이상 늦추지 않고 7월부터는 후원회의 건설과 정책자문위원회의 건설을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인권정보자료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한달여 동안 진행한 신문스크랩으로 25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료실의 종이 박스가 자료 보관에 매우 불편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료 보관을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박스로 바꾸고, 낱장 자료들을 클리어 파일의 속지를 구입하여 넣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 작업을 진행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된 홈페이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꾸준히 인터넷 자료실 소장의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6월 중순까지 민간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결과 민간측의 법안을 만들었고, 오는 7월 6일(화) 오후 2시부터 성공회대성당에서 공청회를 갖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7월 중에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대위는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진행된 전국군포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회장 이혜숙) 어머니들의 국방부 앞 단식농성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3년여 동안 복무했던 이창조 기자가 6월부터 3개월간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하루소식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하루소식은 사무국장이 편집장을 하면서, 유해정, 유점렬씨가 기자로 취재와 기사를 작성하고, 여기에 류은숙씨가 보조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경험과 훈련의 부족, 사무

국장의 바쁜 일정 탓으로 인해서 매일 매일 전쟁 치루듯이 겨우겨우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기사작성과 편집으로 인해 종종 발송이 늦어지고 있고, 기사가 안정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토)에는 <말>지의 김경환 기자를 초빙하여 두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소식에서는 7월부터 지면을 일부 개편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고정 시평란을 폐기하는 대신 시의적절한 기고문을 싣고, 사설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일부 고정란을 조정하는 등의 개편안을 마련, 논의중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정 장관 사퇴'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였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모임은 애초 서울과 부산지역의 113개 단체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호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포함하여 19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 모임에서는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유도설에 대한 진상조사작업에 착수하였고, '총체적 국정개혁'을 요구하는 각계 대표들의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24일에는 '특별검사제와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행동'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하였습니다. 사랑방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자원활동자 모임인 인사동의 대표가 다시 교체되었습니다. 인사동 대표를 맡고 있던 고근예 씨가 사랑방에서 상임활동가 연수를 시작함에 따라 대표를 정재욱 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정재욱 씨는 그동안 불심검문 거부운동 캠페인 팀장을 맡아서 활약했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인 인사동이 최근의 대학생들의 시험으로 소강상태지만, 방학부터는 활발한 활동을 재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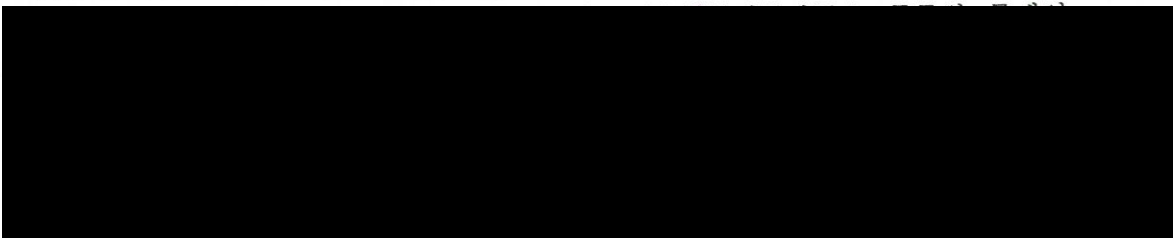
99년 5월 재정보고

(99년 5월 16일 - 6월 15일)

전기이월: -12,551,058 원

| 수 입 | 지 출 |
|---------------------------|-------------------------|
| 회비 1,847,800 | 공과금 88,130 |
| 후원금 459,700 | 복사·제본비 145,440 |
| 사업수익 6,898,820 | 사무기기 수리·유지비 100,000 |
| 인권하루소식 2,748,000 | 사무비품비 806,500 |
| 구독료 2,201,200 | 식비 309,440 |
| 인권시평 배급 506,800 | 연대사업비 130,000 |
| 합본호 판매 40,000 | 우편·발송비 666,530 |
| 인권교육실 1,054,500 | 자료구입비(간행물 포함) 41,000 |
| 교육활동 195,000 | 잡비 46,730 |
| 인권교육길잡이 인세 800,000 | 전화·통신비 1,515,120 |
| 인권교육길잡이 판매 59,500 | 집세 800,000 |
| 인권정보자료실 2,738,320 | 합본호 인쇄비 800,000 |
| 신문스크랩 프로젝트 2,500,000 | 활동비 4,090,000 |
| 자료복사 171,890 | 홍보비 49,000 |
| 국가보안법보고서 판매 48,800 | 기타 23,400 |
| 비디오 대여비 10,000 | |
| 기타 7,630 | |
| 불심검문 카드 판매 38,000 | |
| 강연 320,000 | |
| 기타 6,777 | |
| 수입총액: 9,213,097원 | 지출총액: 9,611,290원 |
| 최종결산: -12,949,251원 | |

<5월 운영·자문위원 회비> (가나다 순)



* 보내주신 돈 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좌 안내>
[Redacted]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